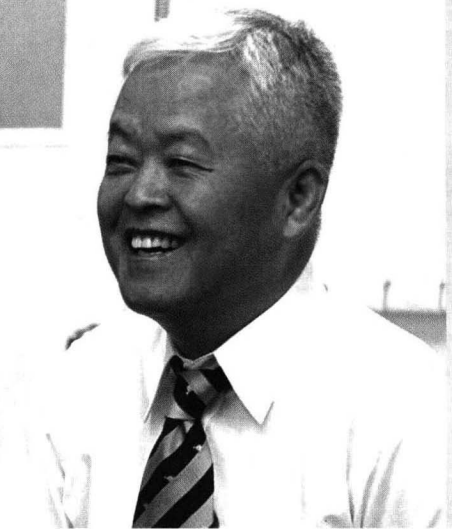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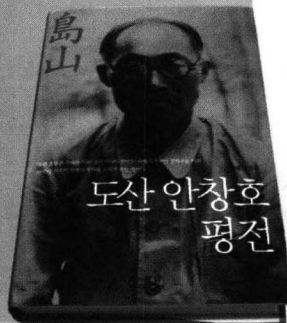


우리 현실, 도산 선생의 뜻을 올바로 되새겨야...



이태복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인생의 지표로 삼기에 모자람 없는 인물이다. “무실역행(務實力行)하고 충의용감(忠義勇敢)하라”는 도산 선생의 가르침은 이태복 교수가 정권에 맞서 옥고를 치른 8년 동안 끝없이 품었던 정신이자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정부 개혁론에 반기를 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던 올곧은 신념의 불씨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홍사단’(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해 창립된 민족운동 단체) 활동과 치열했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 <주간노동자신문> 창간과 운영, 사회복지단체 ‘인간의 대지’를 이끄는 현재까지 “참과 실질을 존중”한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이교수의 노력은 변함없는 진행형이다.

Q 집필을 하게 된 계기와 평전을 소개한다면...

A 안창호 선생이 폭넓은 활동을 했음에도 그동안 왜곡된 모습이 소개되다 보니 원래의 진면목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 부당하고 일면적 평가가 많았다. 찬양 또는 비판으로 평가하다 보니 온전한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역사적 인물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복원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썼다.

Q 자료 정리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A 고등학교 때부터 홍사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2000년 초 《도산 안창호 전집》이라는 자료 전집이 14권으로 나왔다. 그것을 꼼꼼히 읽고 동시대 활동하시던 분들의 자서전 회고록을 보며 도산 학회에서 정리한 김구, 이승만, 이동희 선생들의 일대기를 참고했다.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다. 도산 평전은 이번이 처음 출간된 것이다.

Q 본격 집필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

A 올 초 《복지정책론》이라는 교과서를 아내와 함께 집필 한 후 바로 작업을 시작 해 3개월 정도 걸려 완성했다. 올해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났다. 개인적으로 집필 중에 아버님 상을 당해 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다.

Q 계획은 1984년 수감 당시부터였다고 했는데, 좀 더 일찍 쓸 수 있지 않았나?

A 감옥에서는 볼펜을 주지 않는다. 전주 교도소 시절 겨우 사용허가를 받고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은(비둘기 날려 보내지 않도록) 노트에 쓰다가 8.15 기념 투쟁 때문에 볼펜, 노트를 빼앗겼다. 1988년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일이 많아서 바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 일을 하면서 거듭 생각나는 것이 도산의 문제의식이었다. 첫째는 도산이 강조한 인물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집필 자극을 받았다. 공직에 있으면서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

신적으로 일하려는 태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과 국민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반 사람들의 수준과 비슷한 이야기 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할 지경이었다. 국정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당히 이름만 바꾸고 새로운 메뉴만 등장하니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이 문제가 도산이 제기했던 인물 부재의 문제였다.

두 번째는 사회적 문제다. 우리는 지금 공리공론에만 능하고 현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근본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도산은 바로 이러한 공리공론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입으로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사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비판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이 좌절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공리공론에만 능하고 국민 생활에서 구체적인 조건에서 해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실 역행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본다.

Q 집필하면서 가장 공감하고 감동했던 도산의 정신이라면...

A 분열과 대립 앞에서 취한 그의 태도다. 도산은 분열과 대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관된 통일론을 주장했다.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난 분열적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인물들을 끊임없이 만났다. 그가 임시정부 연내 총재 자리에 있던 당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철수의 회고록을 보면 '도산이 광분망식(여러사람을 만나고 밥 먹는것도 있다)을 하고 토열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았다'고 했다. 비판적 입장의 인사임에도 도산의 성심성의를 다한 통일노력을 인정을 했다. 분열적 용어와 언사를 하지 않으려 애를 쓴 것은 기본이다. 또 하나는 인격적인 부분이다. 도산은 미주 흥사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다른 투사들 보다 독립자금이 넉넉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이 유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절대 악용하지 않았고, 깨끗하지 않은 자금은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공연 했던 독립 투사들의 여성 문제는 그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상대를 포용하고 성심성의를 다한 점은 인간적으로도 본받고 싶은 부분이다.

Q 참고한 자료 중 부족한 점은 없었나.

A 도산이 직접 쓴 자료가 부족했다. 일기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20~21년도)의 일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 압송되어 구속되는 등 국내 활동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언론 탄압 시기여서인지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도산은 평양 출생이어서 북한에 자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출판한 적도 없어 그런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Q 오랜 준비 후 출간됐다. 부담은 없었는지...

A 처음엔 300페이지 분량으로 쓰려 했다. 젊은이들이 잘 모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전을 생각 했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글이 되려면 그에 필요한 증거가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많이 추가하고 주석을 달다 보니 460페이지로 늘어났다. 책이 너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도산 학회나 전문 연구자들이 쓴 도산 관련 글이 많아 부담을 많이 느끼진 않았다.

Q 이 평전이 현 위치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되겠나.

A 그것은 경험담이니까 안타깝게 생각할 따름이다. 중요한 자리인데 현재의 인력 충원 구조와 권력 주변 여건 상태를 보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교수는 당면한 한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누군가에게 도산 선생의 정신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판계에서 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물을 끊임없이 대중에게 선보여야 함을 역설한다. 이 교수는 10년 후의 계획도 현재부터 조금씩 진행시키려 한다. 백성의 실생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한 개혁 인물들을 찾아내 그들의 뜻을 밝히는 작업이다. 시대를 앞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갔던 지도자들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현재 그가 이루고자 하는 '복지 사회'로의 열망을 직, 간접적으로 펼쳐내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오랜기간 도산 선생의 뜻을 되새김질한 덕분인가. 막 평전 집필을 끝내고 그 뜻을 알리기에 힘쓰고 있는 이교수의 모습은 '자기혁신'을 추구하던 도산 선생을 연상케 한다. ☞